

“추억 쏟아지는 ‘금촌계곡야영장’으로 캠핑 오세요”

광양시 4대 계곡 명소화 사업...오토캠핑장 24면·주차장 등 갖춰 전국 24개 팀 1박 2일 캠핑 브랜딩 행사...마을길 트레킹 등 호평

광양시가 백운산 4대 계곡 명소화 사업의 일환인 금촌계곡야영장 조성사업을 완료하고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개방한다.

광양시는 최근 금촌계곡야영장에서 개장식을 열고 전국에서 모집한 24개 팀을 대상으로 1박 2일 캠핑 등 브랜딩 행사를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개장식은 임채기 관광문화환경국장을 비롯해 광양시의원, 캠핑참가자, 다압면 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과보고, 기념사, 퍼포먼스 순으로 진행됐다.

이러 흥성리 명인의 ‘광양매실이야기’, 양장석 라이더의 ‘자전거여행’ 등의 진솔하고 흥미진진한 토크쇼가 펼쳐져 공감과 호응을 얻었다.

또 캠프파이어, 버스킹, 마을길 트레킹, 플로깅 등 낭만적인 프로그램으로 가득한 1박 2일 캠핑을 진행해 광양의 아름다운 낮과 밤을 브랜딩했다.

이번에 개장한 금촌계곡야영장은 오토캠핑장 24면(테크 14면, 파세석 10면) 규모로 관리등을 비롯해 주차장, 개수대, 화장실 등 부대시설을 갖췄다.

야영장은 다각적인 운영방식 검토를 거친 결과 평촌마을 주민으로 구성된 ‘숲의거리 영농조합법인’이 운영해 나가기로 했다.

임채기 광양시 관광문화환경국장은 “백운산, 섬진강, 망덕포구 등 천혜의 자연자원을 두루 품고 있는 광양은 캠핑인구 700만 시대를 선도하는 캠핑에 카로 도약할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선녀가 내려와 베를 짜는 옥녀봉에서 발원한 수려한 금촌계곡과 550리를 달려온 섬진강이 내려다보이는 이곳 금촌계곡야영장이 전국 캠핑인들의 발길로 북적이고 체류형 관광 활성화를 견인하는 동력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지난 27일 금촌계곡야영장에서 임채기 광양시 관광문화환경국장을 비롯해 광양시의원, 캠핑참가자, 다압면 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야영장 개장식이 열렸다.



지난 28일 흑두루미 선발대 360마리가 월동을 위해 순천만을 찾았다. <순천시 제공>

봄에 떠났던 순천만 흑두루미 월동하러 돌아왔다

시, 위치추적기 부착한 360마리 도착 확인...러시아서 번식

올해 순천만을 떠났던 흑두루미들이 번식을 마치고 다시금 순천만으로 돌아왔다.

순천시는 국내 최초로 위치추적기를 부착한 360마리의 흑두루미가 순천만에 지난 28일 도착했다고 밝혔다. 지난 2월 순천만에서 월동하는 개체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했는데, 올해 3월25일 순천만을 떠나 북상했다.

이 흑두루미는 중국 송화강과 러시아 아무르스카야 제야강을 거쳐서 최종 번식은 러시아 하바로브스크 추미칸 습지에서 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시 순천만으로 돌아온 흑두루미는 지난해보다 9일 늦게 도착했는데,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폐막 일정과 맞아떨어졌다.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폐막식은 31일 오전그린광장에서 열린다.

흑두루미 도래를 기다리던 영농단지 분주해졌다. 흑두루미 희망농업단지 62ha 추수는 지난 27일 모두 마쳤으며, 11월초부터는 갈대울타리를 설치하고 철새 지킴이 활동으로 전환한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순천시조 흑두루미가 정원박람회 폐막식에 맞춰 순천으로 돌아왔다”며 “지금부터 순천만 은빛 갈대와 흑두루미가 박람회의 감동을 이어줄 것”이라고 말했다.

/순천=김은중 기자 ejkim@kwangju.co.kr

순천시, 대학원생까지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시의회 의결...미취업자 신청기한도 2년→5년 연장

순천시가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을 대학원생까지 확대한다.

졸업한 미취업자의 신청 기한도 2년에서 5년으로 연장을 이자 상환 부담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시는 ‘순천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272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안건으로 상정했고 전날 의회에서 의결됐다.

조례에 따라 지원 대상은 본인 또는 직계존속이 1년 이상 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국내 대학(원) 재학생 및 휴학생, 졸업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미취업자다. 한국장학재단에서 받은 학자금 대출 이자의 전액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일정 기간에 발생한 학자금 대출이자를 지원받고 한국장학재단 대출 원리금에서 자동 상환된다.

순천시 관계자는 “이번에 지원 범위를 확대해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의 부담이 조금이나마 덜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순천=김은중 기자 ejkim@kwangju.co.kr

보성 제암산자연휴양림 교육·캠핑 장소로 인기

보성군은 제암산자연휴양림 교육에 참여한 단체·기관이 올해 102개 팀 9600명에 달한다고 30일 밝혔다.

제암산자연휴양림은 보성군 직영 시설인 ‘치유센터’가 있어 학생 대상 생태교육과 직무연수 인기 장소로 주목받고 있다.

최근 전남도교육청 교육연수원은 180여 명의 교육생을 제암산자연휴양림으로 보내 ‘2023년 하반기 특수분야 직무연수 교육’을 진행했다.

또 지난 28일 시작한 하반기 교육 ‘자연환경 숲 교실’은 내년 1월19일까지 이어진다.

이곳에서는 전문강사가 나서 환경 교육(탄소중립·농업), 목공예, 건강증진체험(산소방·녹차방·향토방 체험), 자연 명상, 차 만들기 체험 등을 진행한다. 앞서 올해 5월부터 8월까지 150여 명이 ‘2023년 상반기 연수 교육’의 하나로 ‘차와 함께 떠나는 환경 교실’ 수업을 받기도 했다.



보성군 제암산자연휴양림에서 교육생들이 지난 29일 녹차꽃주 만들기 체험을 하고 있다. <보성군 제공>

휴양림은 한국관광공사 주관 ‘한국 관광의 별’에 선정됐고, 휴양림 안에 있는 치유센터는 한국관광공사 웰니스 관광지 ‘힐링 명상’ 분야에 뽑혔다.

/보성=김은중 기자 kym@kwangju.co.kr

광양 농가 농작물 재해보험 자부담 10%

보험료 90% 정부·시도에서 지원...시, 가입 권장

광양시가 겨울 한파, 냉해 등 자연재해 위험에 대비하고 농가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10·11월 중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을 권장하고 있다.

주요 품목별 가입 기간은 ▲차(茶) 10월4일-11월3일 ▲양파 10월23일-11월24일 ▲매실, 복숭아 11월6일-12월1일이며 가입을 원하는 농업인은 가까운 지역농협을 방문하면 된다.

가입 시 보험료의 50%는 정부가, 40%는 시도에서 지원하므로 가입 농가는 보험료의 10%만 부담하면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자연재해로부터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보장받을 수 있다.

광양시에 따르면 올해 9월 말 기준으로 시 농작

물재해보험 가입 농가 1569농가 중 862농가가 약 40억원의 보험금을 수령했다.

3·4월 이상저온 현상으로 피해를 입은 매실 품목의 경우 322농가가 18억원 가량의 보험금을 지급받는 등 농작물재해보험은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농가의 조속한 영농 회복에 도움이 되고 있다.

이병남 광양시 스마트원예과장은 “온난화 등 이상기후 현상으로 재해 발생 예측이 어려워지고 일상화되고 있다”며 “농작물재해보험은 농업인에게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만큼 많은 농가에서 가입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여수시, 드론 조종 전문 인재 양성 앞장



여수시가 드론 조종사 국가 자격증 취득 지원을 위한 2023년 드론전문교육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여수시 제공>

교육생 25명 수료

여수시가 드론 조종사 국가 자격증 취득 지원에 나섰다.

여수시는 드론 조종사 국가 자격증 취득 지원을 위한 2023년 드론전문교육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드론 산업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드론 기술 활용 분야의 전문성 향상과 4차 산업 일자리 창출에 목표를 뒀다.

교육은 지난날 24일부터 10월6일까지 관내 국토부 지정 전문교육기관 2곳에서 진행됐으며 교육생 25명 전원이 모두 수료했다.

교육생은 1종(7kg 이하 25kg 초과)과 2종(7kg 이하 7~25kg 미만), 3종(7kg 이하 7kg 미만) 자격증 취득 교육 등 총 5기수로 나누어 교육을 받았다.

1종을 기준으로 현재까지 교육생의 50%가 넘는 13명이 자격증을 취득했으며, 올해 안으로 100% 자격 취득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드론 교육 만족도 조사를 실시해 사업을 보완, 내년에는 2월에 교육생 모집공고를 시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앞서 여수시는 드론 모빌리티 선도도시를 목표로 국토부 공모사업에 참여, 도서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섬 지역 드론배달서비스 실증 사업’과 드론 비즈니스 모델 개발을 위한 ‘드론 특별 자유회구역’ 등의 공모사업에 선정됐다.

2026여수세계박람회 기간 동안 실시예정인 관광객 UAM(도심항공교통) 체험과 도서 및 소외지역 교통 효율 증대, 응급의료 지원, 재난재해 관리 지원 등으로의 확장을 위한 ‘UAM 항로 개설 기획연구’ 등 드론 모빌리티 시대를 선도하기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여수시 관계자는 “드론 조종사 국가 자격증 취득 지원 사업을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드론 인재를 육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 창출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여수=김창화 기자·동부취재본부장 chkim@

곡성군, 가을 불청객 ‘진드기’ 예방 활동

쫄쫄가무시증 발생률 높은 읍·면 마을회관에 분사기 설치

곡성군이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을 위해 진드기 다발생 지역을 대상으로 진드기 예방 분사기를 설치했다.

진드기 매개 감염병은 쫄쫄가무시증과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SFTS)이 있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올해 10월 기준 야생진드기에 물려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에 감염된 환자는 177명으로 이 중 34명이 사망했다.

곡성군은 2022년 기준으로 쫄쫄가무시증 발생률이 높은 지역에 진드기 예방 분사기를 지원했다. 곡성읍을 포함한 8개 읍·면과 21개 마을회관

에 분사기가 설치됐다. 사용 방법은 간단해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다. 신발이나 의복을 향해 분사기의 노즐의 손잡이를 누르기만 하면, 분사되는 강력한 공기가 옷에 달라붙은 흙, 먼지, 진드기를 효과적으로 제거해 준다.

곡성군 보건의료원 관계자는 “작업 전에는 긴 옷을 착용해 피부 노출을 최소화하고 4시간마다 진드기 기피제를 뿌려야 한다. 그리고 작업 후에는 샤워를 꼭 하고, 입었던 옷은 분리해서 세탁해야 진드기 매개 감염병을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곡성=박종태 기자 pjtt@kwangju.co.kr